

2023. 2. 3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2월 2일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

보건의료정책과장	이준형	2133-7505
응급의료관리팀장	함현진	2133-7536
담 당 자	이은지	2133-9672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3쪽

### 서울시-편의점 협약, '자동심장충격기' 175곳 편의점 설치확대

- 서울시, 편의점 4개사(CU·GS25·세븐일레븐·이마트24)와 2.2(목) 업무협약 체결
- 24시간 개방하고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'편의점'에 '자동심장충격기' 설치
- 시, 일상 속 시민 응급상황 대처 능력 높이고 심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

-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 '자동심장충격기'가 설치돼 응급상황 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. 서울특별시는 편의점 4개사(CU, GS25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)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2월 중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대한다.
- 서울시는 편의점 4개 업체와 2월 2일 '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구조·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업무협약'을 체결한다. 이어 편의점 직원 대상으로 구조·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 실질적인 응급 대처를 지원한다.
-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편의점에 '자동심장충격기'를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지원하고, 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으로 시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.

- 편의점 직원 대상 ‘구조·응급처치교육’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,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,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방법 교육을 진행해 편의점 안전관리책임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.
-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▲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지원 ▲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편의점 내 공간 제공 ▲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원의 체계적 교육 운영 ▲자동심장충격기 유지·관리 수행 업무를 협력할 예정이다.
- <서울시>는 2월 중 4개사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하게 설치할 예정이다. 지하철역, 대규모 상가, 아파트 근처 편의점 같이 이용자가 많거나 밀집 지역의 편의점을 추천받아 우선 설치한다.
- <편의점 4개사>는 시민의 왕래가 많은 편의점을 선정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 편의점별로 ‘안전관리책임자’도 지정해 직원들이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 장비의 사용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.
-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·확대하고, 심폐소생술 교육도 강화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붙임. 업무 협약 개요

**협약개요**

- 일 시 : 2023. 2. 2.(목) 14:00
- 장 소 :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
- 협약기관 : 서울특별시, (주)BGF리테일, (주)GS리테일, (주)이마트24, (주)코리아세븐
- 건 명 : 편의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업무협약
- 협력사항
  - 편의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지원
  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한 편의점 내 공간 제공
  - 자동심장충격기 안전관리책임자 등 직원의 체계적 교육 운영
  - 자동심장충격기 유지·관리 업무 수행
- 기타 :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(14:30~16:30) 실시